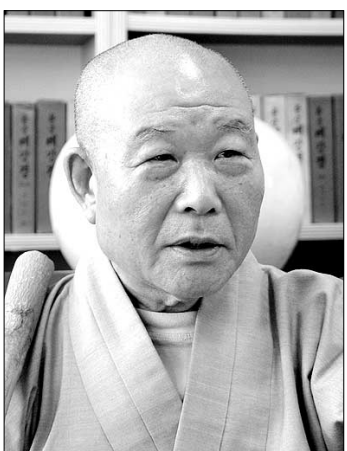


‘유명인사’ 명예 버리고 ‘늦깎이’ 출가한 두 스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수행”

前 신라대 총장 법산 스님



신라대 총장을 지내는 등 40여년 교직에 몸담았던 김용태(65) 박사가 5월 10일 다시 불문에 귀의했다.

7살에 선사였던 아버지(금호 스님)로부터 발심수행장을 배우고, 13살 양산 통도사 주지였던 양대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율하 스님을 법사로 받았던 불명 법산(法山)을 40여년 만에 되찾으며 다시 스님이 됐다.

그러나 5월 13일 부산 금곡동 원효정사에서 만난 법산 스님의 첫 마디는 “나는 그대로다”였다. 단지 형상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원효의 본래처로 돌아오고 나니, 고향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환희심으로 넘쳐난다”며 “이렇게 좋은 곳에 왜 지금이야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후회도 없다. 무위(無爲)의 세계에 왔으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명예 다 버렸으니 이제부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면서 수행하려 합니다.” 왜 돌아온 것일까? “거음이 스스로를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추구해야겠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다. 1남 2녀의 자녀와 부인은 “세상의 인연을 더 높은 인연으로 승화시키자”는 법산 스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총장으로, 이름난 문필가로서의 명예를 벗어던지고 본래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스님은 21일 정안법회를 앞두고 막바지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량 이곳저곳

본래처로 돌아오니 환희심 “화엄사상 널리 알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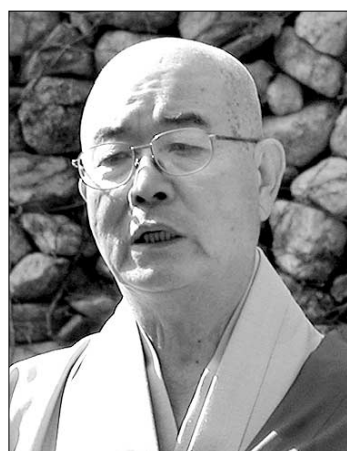
을 직접 복 차림으로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불교대학원대학 설립을 발원한 지 2년 여. 원효정사 개원이 이어 원효화림도 내년 3월이면 문을 열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효정사는 학교법인 원효학림의 중심도량으로 화엄사상 실천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법산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비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중생과 부처, 진제(眞諦)와 속제(俗諦)가 둘 아닌 화엄사상을 널리 전하겠다”며 원효정사를 화엄산림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절 문턱 낮춰 열린공간 만들터”

KBS 사장 지낸 지연 스님



고희(古稀)출가. 그리고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날. 지연(志淵) 스님은 불사에 매달려 온 자신을 돌아본다.

70년 동안 불리던 ‘박현태(朴玄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연’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지 벌써 반년 하고도 한달이 더 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원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백련사 도량불사에 매달린 시간과 일치한다.

지연 스님은 불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열흘 앞둔 5월 16일 낙성법회를 열었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

화려한 경력 나이들수록 집 많은 사람 위해 여생 회향

다. 그런데 만원을 이뤘다. 함께 수계했던 도반 30여명이 부처님 이운·점안을 도왔고, 장건준인 이연수 모란미술관장을 비롯해 낙성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축하해줬다.

“화려한 경력이 집이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람 있게 회향하고픈 생각도 들더군요. 출가는 사실 무척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출가 세상과의 단절은 분명 아니었다. 세간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뒤늦게 출가를 선택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한국방송 사장’ ‘문화일보 부사장’ ‘수원대 법정대학장’ ‘동명정보대 총장’ 등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던

남양주=박봉영 기자

우리 시단의 큰 나무 구상(具常 85) 시인의 타계 소식을 듣고 서가를 뒤져 시집 한권을 찾았다. <인류의盲點에서>란 제목 아래 윤보(김기창)의 그림이 눈부시다. 찬연한 황금빛 하늘로 해가 두둥실 솟아오르고 있다. 그 옆을 날고 있는 학 한 마리. 마치 노시인이 하늘로 귀환하는 장면인 듯하다. 시집은

구상 시인의 법문

나고 없는다. 시집은 구상 시인의 법문

한 시대의 지성인이 살아 온 격랑의 세파를 담담히 참회하며 몇 사람들에게 깨끗한 영혼을 가꾸는 길을 안내하는 사들로 채워져 있다.

구상 시인은 자신의 시집 표지화로 했던 이중섭의 그림을 상당한 고가에 팔았지만 돈에 손도 한 번 대지 않고 복지시설로 회사

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화’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남에게 신세 안지기’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인은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는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지난해 겨울, 큰스님들이 줄이어 떠나더니 시단의 원로도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갔다. 원로들이 떠나고 있는

세상의 허전함을 매

울 ‘그 무엇’은 아직 없는데...우리의 세파를 담담히 참회하며 몇몇 사람들에게 깨끗한 영혼을 가꾸는 길을 안내하는 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제 머지 않아 나는/저승의 관문, 신령한 거울 앞에서/저런 추악망측한 나의 참모습과/마주해야 하니 일을 어찌랴!”(임종고백 卮)

임연태(편집부장)

목탁소리

‘부처님 오신날’의 영문 표기인 ‘Buddha’s Birthday’는 적절한 표현인가? 부처님 오신날 공식 포스터와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들어있는 영문 표기 ‘Buddha’s Birthday’. 그러나 그 표기가 2500여 년 전 인도 룸비니 동산에서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

‘Buddha’s Birthday’

다. 서양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Buddha’s Birthday’로 그대로 결정됐다.

특히 부처님은 이미 오래 전에 성불하셨고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법화경>의 입장에서 볼 때, ‘Buddha’s

Birthda’는 흡족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탄생보다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교 최대 명절 ‘부처님 오신날’이 ‘Buddha’s Birthday’로 결정된 것은 1999년 무렵 진행된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의 불교

용어 영문 표기 프로젝트에서

다. 서양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Buddha’s Birthday’로 그대로 결정됐다.

팔로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외쳐선 안 된다.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다.

강유진(취재부 기자)

제8회 만해대상 넬슨 만델라 선정



넬슨 만델라, 법타, 임권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제 8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산·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인권지도자로서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를 통해 인류와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천부문은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문학부문은 소설가 황석영 씨, 학술부문은 데이비드 맥켄 미국 하버드대 교수, 예술부문은 임권택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타 스님은 92년 12월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고 매달 60만 이상의 밑가무를 지원했으며, 황석영 씨는 그의 대표작인 <장길산>을 통해 민족사관을 총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또 데이비드 맥켄 교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의 시조와 민요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임권택 감독은 영화 ‘취화선’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민족혼과 예술혼을 살리는데 독보적인 업적을 높이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김주필 기자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10건 보물 지정

<대방광불화엄경소> 권 48, 64, 83과 <금강반야바라밀경>,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법 합본> 등 10건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5월 13일 이들 10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고,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 등 3건의 보물 지정에도 한다고 밝혔다.

보물 제1409호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중국 송나라 정원(淨源)이 의천에게 보낸 주본(周本) 화엄경소 120권 가운데 3권이다. 문화

재청은 “이 불경은 당시 의천의 불서 수집 상황과 함께 송나라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문화교류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강반야바라밀경>(보물 제1408호)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경을 바탕으로 육조 해능이 해석한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1305년(고려 충렬왕 31년) 청주 원흥사에서 판각한 목판본이다. 이 불경은 조선시대 초기에 간행된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의 편성과정을 밝힐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지학과 인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로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법>(보물 제1407호) 합본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판본으로 고려와 원과의 교류관계를 알려주는 동시에 서지학과 인쇄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오유진 기자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대상 정광중 조아진 양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윤희백)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한 ‘제7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

전’에서 정광중학교 3년 조아진 학생의 작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대상인 총무원장상으로 선정했다.

조아진 학생은 전통사찰의 구도와 명암을 반야심경과 함께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파라미타는 이외에도 최우수상에 한주영 학생(광동고), 김윤호 학생(동대부중), 우수상에 장예슬(명성여중) 외 5명 등 총 15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경공모전에 수상한 작품들은 23일 우정국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마당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봉축 행사 안내

수행과 나눔의 실천

법회 및 의식

시정앞 점등식

서울도심의 중심 시정앞 광장에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대형 등이 들어서 정열한 빛을 밝힙니다. 5월 11일(화) 오후 7시, 시정앞 시민공원

서울지방경찰청법회

5월 14일(금) 오전 8시,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

북한통천피해주민 돕기 3000대 운영정전

5월 15일(토) 오후 7시~16일(일) 오전 4시, 대웅전

큰스님 인연대법회 일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1차~5월 16일(지관스님·원로의원) 2차~5월 23일(월은스님·봉선사조실)

연등축제 등만들기 마당

5월 1일~5월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대웅전 앞마당

연등법회 및 제등행진

5월 23일(일) 오후 2시~9시 연등법회: 동대문아구장 제등행진경로: 동대문아구장 → 종로 → 조계사

Galadina Festival (몽골축제)

조계사와 몽골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하여 사회주의속에서 사라졌던 몽골 불교전통을 복원하는 축제입니다. 5월 23일 ~ 5월 26일, 조계사역 우정총국 공원

포교/자비의 손길

자비의 선물

군정병, 독거노인, 재소자 등에게 불자의 정성어린 선물을 보내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모금: 4월 27일~5월 16일 사리탑과 백승일 선물포장 및 전달~5월 17일(월) 오전 9시 부터

이웃을 위한 등 달기

올해로 5년째 맞는 이웃을 위한 등 달기는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정현어린이(12세·남)를 위한 희망과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모금: 5월 1일(토)~5월 26일(수), 신도회 사무처 앞

거리법보시, 거리포교

5월 23일(일), 인사동 및 종묘공원

지역/문화행사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 '우리도 부처님 같이' 식발수계식: 5월 3일(월) 오후 1시, 대웅전 환계식: 5월 28일(금) 오전 11시, 대웅전

어버티날 경로행사 - '365일 당신이 최고야' 5월 8일(토)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

영화 상영 '송환' 미전향장기수의 갈등과 인간적 고뇌를 다뤄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5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대웅전 앞마당

붓다워크캠프 외국인들의 한국불교 체험 5월 15일 ~ 5월 28일 조계사 경내

나눔의 경터 5월 18일(화) ~ 5월 26일(수) 조계사 입구

5월 26일 부처님 오신날 당일행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봉축문화마당 오후 3시

조계사합창단·무용단

고려예술단 / 또랑광대 / 몽골축제단

봉축회향기도 오후 7시



110-170 서울시 용문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조계사 http://www.jogyesa.org